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은미¹, 김윤정^{2*}

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²한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High School Girls

Eun-Mi Shin¹, Yun-Jeong Kim^{2*}

¹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of Child and Adolescent, Hanseo University,

²Dept. of Health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남 S시에 소재하는 S여자고등학교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양적 및 질적 통합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여고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여고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적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양적 분석 시에만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학교생활적응은 질적 분석 시에만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고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집단미술치료,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여고생, 통합적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high school girls. For this purpose, a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performed for 6 students of S girls' high school in S city in Chungcheongnamdo and the effects were analyzed by integrated metho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oup art therapy programs were found to positively affect the self-esteem of high school girls. Second, i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of high school girls. However,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self-esteem only by quantitative analysis and a change in school life adaptation only by qualitative analysis. Finally, based on this study,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lowered self-esteem and low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high school girls were discussed.

Key Words : Group art therapy,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high school girls, Integrated research method

1. 서론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개인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과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학

교환경과 개인 사이에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말한다[1].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관계 및 인간관계는 학교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Corresponding Author : Yun-Jeong Kim(twoyun21@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5,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January 2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질 경우 그들은 건전한 인성 형성과 미래의 직업적 성공,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응이 실패적인 경우 그들은 학교 생활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2], 나아가 사회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학업성취, 자아탄력성, 사회적 고립감으로 밝혀졌다[4-6]. 이중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김석기[6]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모든 활동에 활동적이었고 의사표현에 적극성을 보이고 또래와도 협동적이며, 창조적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교생활적응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내적 원인으로 귀인시켜 자기 비하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학교생활에서의 대인 관계 및 사회 적응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그들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 수용 및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할 것이다[7]. 미술은 언어적 수단과는 다르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과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세부적 심리의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독자적 심리 이해가 가능하며 내면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는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7].

한편, 집단미술치료란 미술치료를 집단에 적용하며 집단상담에 미술을 도입한 것을 말한다[8]. 즉, 구성원들이 그림을 통하여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갈등을 재경험하는 동시에 자기를 인식 및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찰과 사회 참여도 향상, 인간관계 개선이 이루는 과정이다[9]. 이러한 집단미술치료 효과는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등 주로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0].

국내의 집단미술치료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집단미술치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로 박재연[11], 정주경[12], 백경희[13] 등의 연구가 있으며 질적 연구인 경우 권희정[14], 송대근[15] 등이 있으며 양적, 질적 방법을 모두 통합한 연구로 손은미[16], 심연희[17], 전정화[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대부분 노인과 성인 및 특수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여학생, 특히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편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본 연구와 같이 양적, 질적 방법을 같이 쓰는 통합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0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연구대상의 학교생활적응 변화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고생들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함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S시 소재의 여자 고등학교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홍보한 뒤 참여 가능한 여고생의 신청을 받아 8명을 선정하였다. 주 2회 60분씩 총 10회기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고생 중 2명이 프로그램 3번째 회기에 국외 여행과 가족 간호로 인해 중도 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 분석은 6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이 2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2명이었고, 이들의 거주지는 모두 S시였으며 재학 중인 학교도 S고등학교로 모두 동일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희화 등

[21]이 개발하고 김희화[22]가 보완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9개의 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학업 자아 10문항, 친구 자아 9문항, 가정 자아 6문항, 신체외모 자아 7문항, 성격 자아 6문항, 신체능력 자아 6문항, 교사관계 자아 5문항 총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업 자아 .832, 친구 자아 .817, 가정 자아 .733, 신체외모 자아 .729, 성격 자아 .879, 신체능력 자아 .822, 교사관계 자아 .818 전체는 .927로 나타났다.

2.2.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도는 김정환[23]의 학교 관련 태도 척도와 이상필[24]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바탕으로 이영선[25]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학생관계 8문항, 교우관계 8문항, 학교수업 관계 8문항, 학교환경 8문항, 학교행사참여 8문항으로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교사-학생관계 .738, 교우관계 .721, 학교수업 관계 .638, 학교환경 .799, 학교행사참여 .782 전체는 .828로 나타났다.

2.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방법을 같이 쓰는 통합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분석 방법으로는 학생 개인별로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질적분석 도구로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을 활용하여 사진, 사후그림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종의 실험연구로서 실험 전, 후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변화일 경우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술치료의 효과는 통합적 분석방법이 매우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하여 보다 세심한 해석이 가능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20].

2.3 프로그램의 구성

본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여고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기별 주제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회기는 주 2회기, 각 회기마다 활동설명 10분과 활동 시간 40분, 마무리 1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회기의 마지막에 본 연구자와 집단원들이 이야기를 나눈 뒤 소감을 작성하였다.

Table 1. Program summary by session

Session	Subject
1	Opening one's mind
2	Exploring the soil
3	The time I like and the time I dislike
4	When I'm happy and when I'm angry
5	Self that I see myself and self that the others see me
6	Self that I want to throw away and self that I want to keep
7	Drawing self's whole body
8	Creating a house I want to live in
9	My past, present, future (10 years)
10	Activity evaluation

1회기 주제는 ‘마음을 열어요’로 거부감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콜라주를 사용하였으며, 잡지, 비즈, 풀, 사인펜 등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그림을 4절지에 마음대로 붙이도록 지시하였고, 작품이 완성되면 제목을 붙였다. 2회기는 ‘흙에 대한 탐색’이 주제였다. 부드러운 청자토를 사용해 흙을 다루면서 부드러움을 느끼고 정서이완 작용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하여 감정 발산과 조절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었다. 3회기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과 내가 싫어하는 시간’이 주제였다. 4절지와 사인펜, 크레파스 등을 사용하였고 긍정,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수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였다. 4회기 주제는 ‘내가 기쁠 때와 내가 화났을 때’다. 4절지에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억압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을 발산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었다. 5회기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주제였으며 현재의 나와 관계 속의 나를 자각하고 정립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었으며, 2절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6회기 주제는 ‘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였다. 4절지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탐색하고 자동적 사고와 감정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활동이었다. 7회기는 ‘전신상 그리기’를

전지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내면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8회기 주제는 협동 작품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를 주제로 집단원들과 협동하는 활동이었으며 청자토, 물을 가지고 집단원들과 살고 싶은 집에 대하여 상의하고 협동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여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활동이었다. 9회기 주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10년)의 모습 그리기’였다. 2절지와 4B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이었다. 10회기는 마지막회기로 ‘활동평가’를 하였다. 그동안 활동한 프로그램을 다시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집단원들과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결심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종결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실험집단 여고생의 개별 변화의 양적분석

실험집단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의 변화를 각 개인별로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모두 하위 요인별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비교를 통해 변화 정도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전체 6명 중 학업 자아는 4명이 향상되었으나 2명은 저하되었고, 친구 자아는 6명 모두 향상되었다. 또한, 가정 자아는 4명이 향상되었고 2명은 변화가 없었고 신체외모 자아는 2명이 향상, 4명이 저하되었다. 신체능력 자아는 3명이 향상되었고 1명이 저하, 그리고 2명은 변화가 없었고 끝으로 교사관계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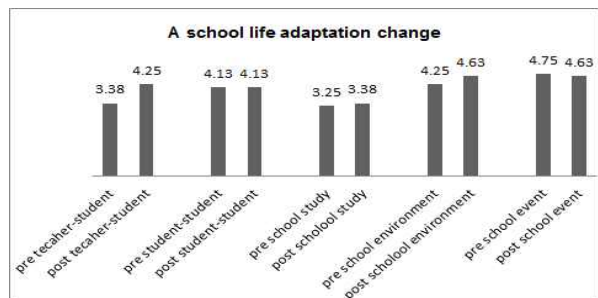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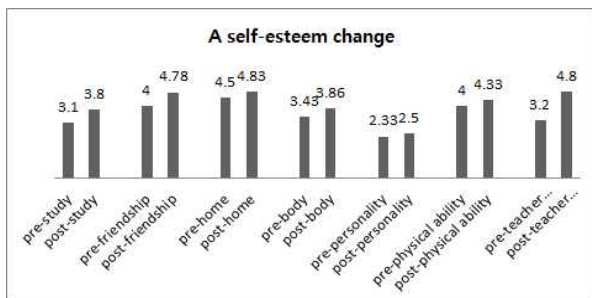
는 3명이 향상, 3명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교사-학생 관계일 경우 5명이 향상, 1명이 변화가 없었고, 교우 관계는 3명이 향상, 1명이 저하, 2명이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학교수업 관계는 4명이 향상, 2명이 저하되었고, 학교 환경 관계는 3명이 향상, 1명이 저하, 2명은 그대로였다. 끝으로 학교 행사 관계는 5명이 향상, 1명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HTP 분석을 통한 질적분석

실험집단 여고생의 HTP 분석을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A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대부분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질적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극적, 의존적, 안정성, 지적 정서에서 능동적, 고독감, 불확실감, 회피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향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A-1-pre는 생각이 많음과 집착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주며 오른쪽에 치우쳐져 환경의 영향에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극적, 방어적 경향이 있고 내면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1-post를 보면, 능동적, 주체적으로 변화하였다. 강박적인 표현이 엿보이나 낮은 계단에서 주변과의 접근성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2-pre를 보면, 상호작용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둥지와 그네는 의존적인 성격을 암시한다. 많은 열매는 높은 사랑과 관심의 욕구를 보여준다. A-2-post를 보면, 구순적 욕구와 고독한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의 심리적 불안을 예상하게 하며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은 자아의 통제력의 약화와 우울감을 반영하고 있다. A-3-pre를 보면, 긴 머리와 구두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웃고 있는 표정과 손가락이 표현된 손은 안정된 정서와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상복을 입고 있으며 약간 벌려진 팔은 자연스럽다. A-3-post를 보면, 필압은 낮고 스케치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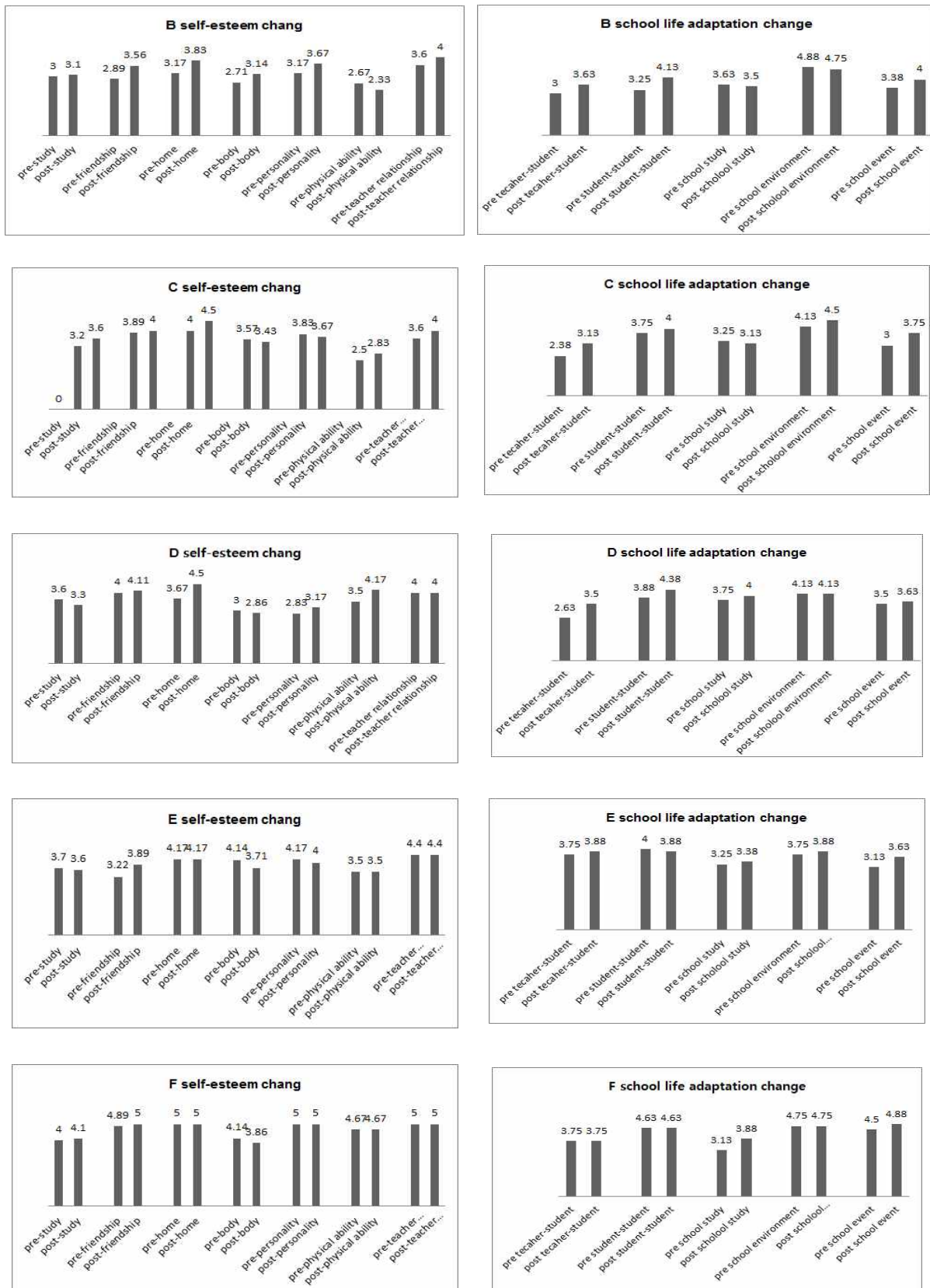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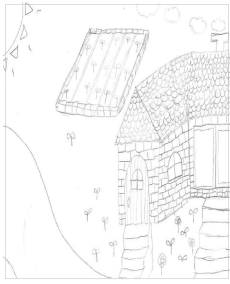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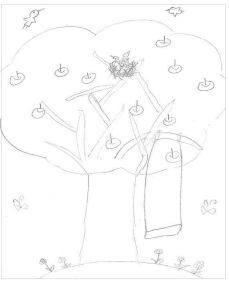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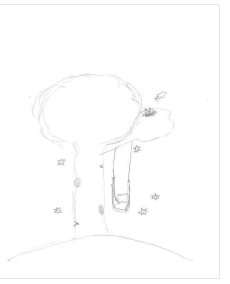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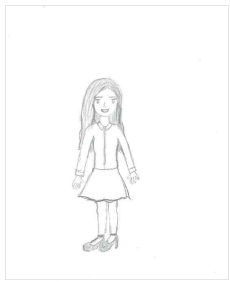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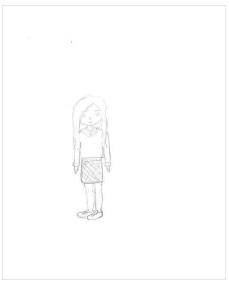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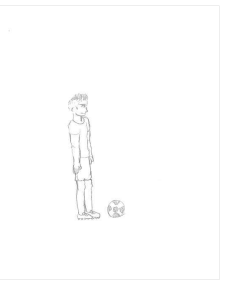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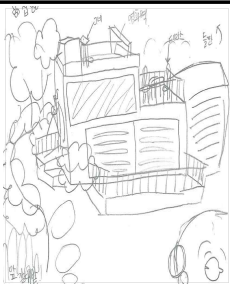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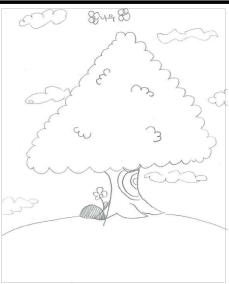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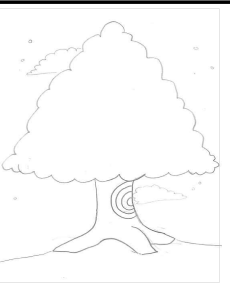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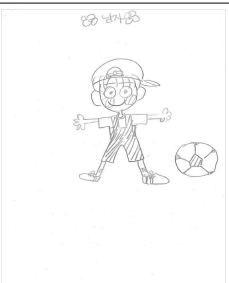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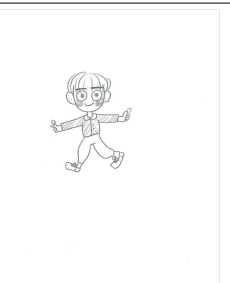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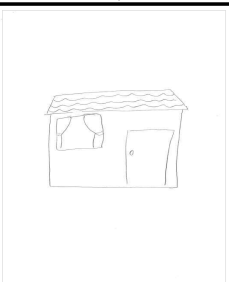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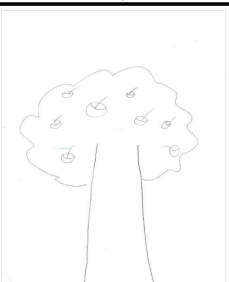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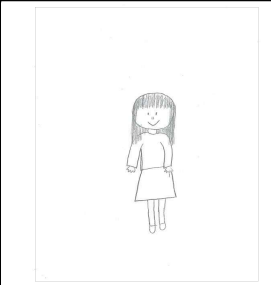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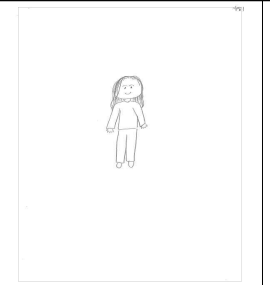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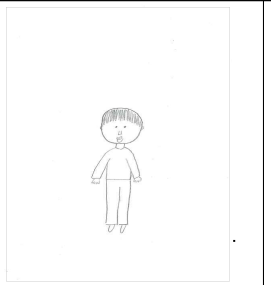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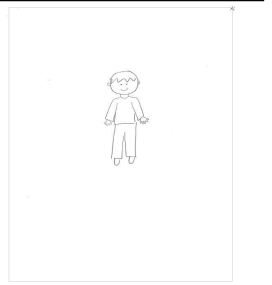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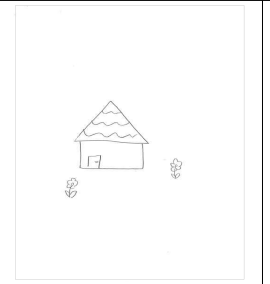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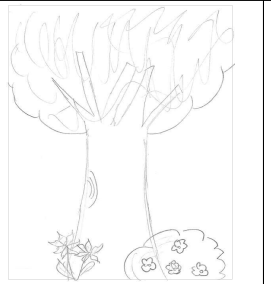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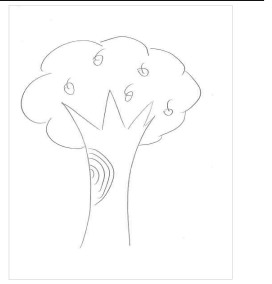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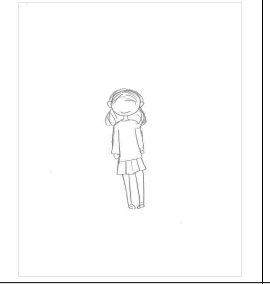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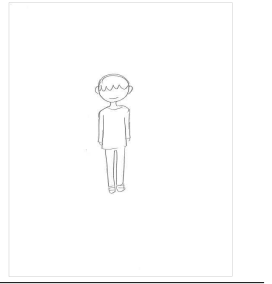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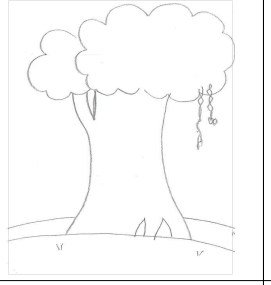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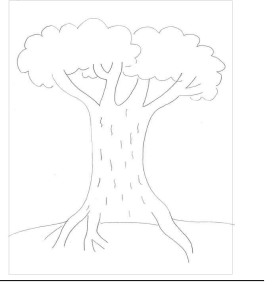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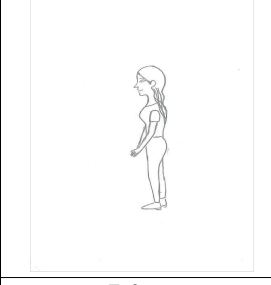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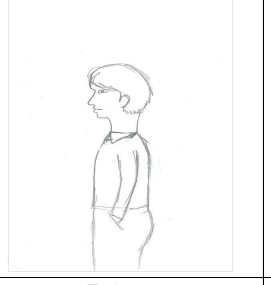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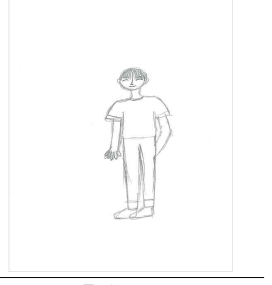


Fig. 1. Pre-post scores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by participants <n=6>

	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A				
	A-1-pre	A-1-post	A-2-pre	A-2-post
				
	A-3-pre	A-3-post	A-4-pre	A-4-post
B				
	B-1-pre	B-1-post	B-2-pre	B-2-post
				
	B-3-pre	B-3-post	B-4-pre	B-4-post
C				
	C-1-pre	C-1-post	C-2-pre	C-2-post

				
	C-3-pre	C-3-post	C-4-pre	C-4-post
D				
	D-1-pre	D-1-post	D-2-pre	D-2-post
				
	D-3-pre	D-3-post	D-4-pre	D-4-post
E				
	E-1-pre	E-1-post	E-2-pre	E-2-post
				
	E-3-pre	E-3-post	E-4-pre	E-4-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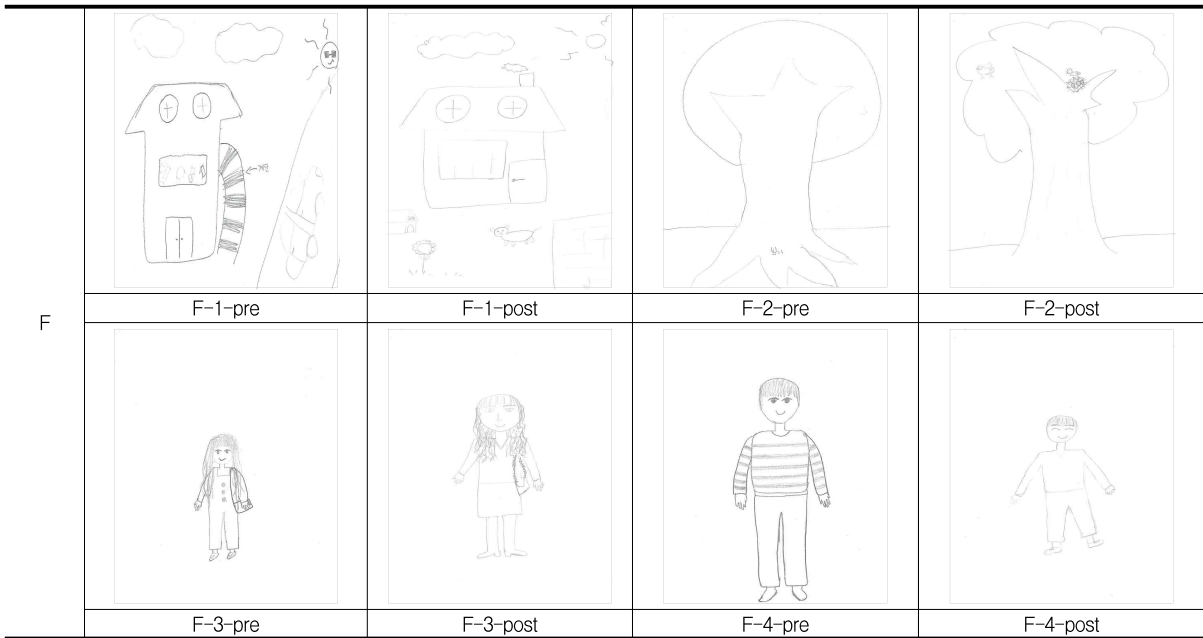


Fig. 2. Pre-post test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by participants <n=6>

의 선으로 그려져 불안, 불확실감을 준다. 아래로 처진 듯 굳게 다문 입으로 우울한 표정이며 손가락이 생략되어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A-4-pre에서는 미소를 띠고 있는 밝은 표정의 남학생을 그렸다. 단정한 옷깃과 옆구리에 낀 책으로 충동에 대한 통제와 지적인 욕구를 나타내며 시계와 지갑 등의 장신구와 덧칠하여진 다리는 남성적인 매력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4-post에서는 크기는 작은 편이며 공을 발 앞에 두어 운동성을 나타내려 하였으나 자세는 경직되어 있다. 옆으로 선 모습으로 검사에 대한 회피를 추측할 수 있다. B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대부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질적분석 결과도 타인 인식, 방어적 태도, 억압적 정서에서 적극성, 우울성 저하, 역동적 정서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충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침을 알 수 있다.

B-1-pre를 보면 그림 속의 모든 사물에 이름을 써넣어 타인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 주위를 숲과 연못으로 둘러싸 방어와 안전감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1-post에서는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지 않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이 간결하고 정리되었으며 집을 둘러싼 나무 울타리가 견고하여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B-2-pre는 유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예상된다. 신체적 욕구의 지배가 많은 편이며 구름과 돌이 있으나 화지의 상단에 '나무'라고 적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B-2-post는 구름의 개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돌과 꽃이 생략되었다. 우울성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둥근 언덕과 같은 지면이 편평한 땅으로 표현되어 보다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3-pre는 자기 방어적 요소가 있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경계심과 확립되지 않은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가 산만한 것으로 보이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나타났다. B-3-post를 보면 손에 든 꽃과 사탕이 사라졌으며 그림의 제목이 쓰여지지 않아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웃고 있는 입과 움직이는 다리로 역동적인 심리적 에너지가 활발함이 보여 진다. B-4-pre는 양식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되었다. 넓게 벌린 다리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양 쪽으로 벌린 팔은 억압된 상태에서 정서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B-4-post는 공격성을 상징하는 공이 사라졌으며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표현되었다. 눈썹을 길게 그림으로써 남성성이 미약하게 표현이 되었고 걸어가는 다리로 그려져 심리적 에너지가 느껴진다.

C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대부분 하위 영역에서 향상되었고 질적분석을 살펴보면 의존성, 불안감, 내향적인 정서에서 프로그램

시행 후 개방성, 안정감, 자신감 등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1-pre를 보면 커다란 창문과 문 앞에 꽃길을 연결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소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왼쪽 상단에 해를 그려 모에게의 의존성을 암시하며 격자무늬의 창문은 퇴행적 경향을 보여준다. C-1-post는 화지의 세로 방향으로 그려졌고 창문에 커튼이 그려져 가정에서의 아름다움에의 관심이나 수줍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큰 창문과 창문보다 높은 문은 개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C-2-pre는 도움을 받을 지지세력이 없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려 하고 성격의 통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열매가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2-post는 나무가 전체적으로 작아졌으나 지면에 기저선이 그려져 안정감을 획득하였음을 나타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힘을 나타낸다. C-3-pre를 보면 눈을 작은 점으로 표현한 것은 내향적이며 위축된 경향을 나타낸다. 기울어진 자세는 피검자의 불안정한 느낌을 반영하고 있으나 선을 덧붙여 다리의 길이가 길게 그려진 것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C-3-post 눈에 눈썹이 그려졌고 머리카락의 표현이 사전 그림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다. 다리의 길이는 여전히 조금 다르나 어깨와 상체는 기울어지지 않았다. 외부로 보는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대처능력과 안정감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C-4-pre를 보면 눈이 작은 점으로 표현되었고 전체적으로 어린 아동으로 보여지는 남자를 그렸다. 통통한 입술은 의존적 경향과 정서적 관계에서 받기를 원하는 편임을 의미한다. 아동으로 그린 것은 정서적 나이가 어림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C-4-post는 눈이 작은 점으로 표현되었고 입술은 단선으로 활모양으로 그려졌으며 머리카락이 칠 없이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외부로 의식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며 정서적 나이가 좀 더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D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향상되었으나 질적분석 결과는 프로그램 시행 전 불안감, 혼란, 무능력감, 경직성 등의 부정적 정서에서 시행 후 불편감, 공격성, 스트레스,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부정적 정서를 양적, 질적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D-1-pre를 보면 덧칠 하여진 선은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양가감정이나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창문에 그려진 진하고 넓은 창살과 울타리는 방어적으로

느껴지며 집 옆에 가까이 붙은 나무는 가정의 의존을 나타낸다. 집의 위치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선의 속도는 빠르고 필압은 진한 편이다. 창문이 없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1-post는 집의 위치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선의 속도는 빠르고 필압은 진한 편이다. 창문이 없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2-pre를 보면 나무의 줄기를 여러 겹의 선으로 덧칠하여 불안한 심리와 자아의 경계가 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나치게 크고 어지러운 선으로 채워진 수관은 공상이 많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을 예측하게 한다. D-2-post는 수관에 채워졌던 어지러운 선 대신 열매가 그려졌다. 현실감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지 끝이 뾰족하게 그려져 공격성이 표현되었으며 줄기의 옹이가 눈에 띄게 강조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D-3-pre를 보면 불안한 선에서 자신감의 결여와 불안감이 느껴지고 얼굴과 연결된 목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뒤로 감춰진 손은 환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무능력감을 의미한다. D-3-post 선이 간결해지고 진해진 것은 현실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나 눈이 표현되지 않아 외계에 대한 경계와 회피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D-4-pre는 자세가 경직되었고 남성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표정은 힘없고 슬퍼 보이며 손은 둥글게 그려졌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주장이 약하며 회피적이다. D-4-post를 보면 크기는 작으나 정면으로 그려졌다. 선은 간결하고 빠른 속도로 그려졌으나 선이 주의 깊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남자의 눈과 코도 역시 표현되지 않았다.

E여고생인 경우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인 경우 1개의 하위 영역에서만 향상되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도는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한편, 질적 분석을 살펴보면 내향성, 불안감, 충동성, 곤란감에서 프로그램 시행 후 적극성, 자아통제력 향상, 회피성향 감소, 통제 욕구 증가 등의 정서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심리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된다. E-1-pre는 기와지붕이 있으며 아래층에는 창문이 없고 2층에 테라스가 있는 창문이 있다. 굳건히 닫힌 듯 보이는 큰 문이 있고 집 옆에 차고가 있다. 자기만의 공상을 즐기며 외부와의 소통에는 소극적이다. E-1-post의 사후 그림에서는 정면으로 그려져 있고 보다 빠르고 좀 더 정

리된 선으로 그려져 있다. 문 앞에 돌길이 있고 꽃도 그려져 있다. 창문에 틀이 강조되고 그림자로 칠해져 있으나 외부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E-2-pre를 보면 넓은 밑둥은 본능적 욕구의 지배가 강한 것을 상징하고 작은 수관과 팔 모양의 가지는 퇴행적 심리를 보여준다. 끊어진 그네 줄과 드러난 뿌리는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E-2-post는 나무의 줄기에 그려진 선은 성적인 느낌을 주며 뿌리가 강조되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줄기의 굵기가 보통의 수준으로 자아통제력이 향상되었으며 늘어난 가지의 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원활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E-3-pre를 보면 여자가 측면으로 그려졌으며 성적인 특징이 강조되었다. 여성성이 강조되었다. 손이 사람 전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며 한쪽 손만이 그려져 있다. 환경에 접촉하려는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3-post는 여자가 정면으로 그려졌고 여전히 한쪽 손만이 그려져 있는데 손 크기는 사전에 비하여 커졌다. 회피성향이 다소 감소되었고 사회적응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E-4-pre를 보면 남자가 측면으로 그려졌으며 손은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그려졌다. 여성상에 비하여 크게 그려졌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곤란을 나타낸다. E-4-post는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손을 여러 회 고쳐서 그린 것은 손으로 행하는 행동에 대한 갈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신체에 사용된 여러 개의 선은 신체에 대하여 부적절감이 있음을 암시한다. 끝으로 F여고생을 살펴보면 양적분석에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 하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질적분석인 경우 비소통, 자기 중심성, 사고의 경직성에서 프로그램 시행 후 충동의 조절, 적응, 성숙감의 정서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F-1-pre를 보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퇴행적이고 이층벽으로 연결된 계단은 타인과의 소통이 직접적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F-1-post는 의인화된 표현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굴뚝에 연기가 그려졌다. 충동이 조절되고 있으며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2-pre는 뿌리가 강조되어 있으며 수관이 단순한 원으로 그려졌다.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예상된다. 강조된 뿌리에서 불안이 느껴진다. F-2-post를 보면 현실감과 적응력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불안도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가지의 끝이 뾰족하여 공격성이 예상되며 새둥지는 따뜻한 가정의 소망을 의미한다. F-3-pre는 어려보이는 소녀를 그렸다. 코가 생략되었고 어깨에 메는 가방을 그렸고 세로로 강조된 단추가 있다. 유아적이며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며 <여자>라고 제목을 붙여 타인을 의식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F-3-post를 보면 사전 그림에 비하여 키가 커지고 어깨가 강조되었으며 나이가 든 여자를 그렸다. 장식적인 핸드백을 메고 있으며 코가 그려져 있다. 심리적으로 성숙하였으며 여성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F-4-pre는 정면을 향하여서 있으며 상의에 줄무늬가 그려져 활동적으로 보이며 좌우대칭이 강조되어 사고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귀가 없고 신발이 표현되지 않았다. F-4-post는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어깨가 직선으로 강조되어 권위와 힘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 쪽 다리를 들고 있어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S시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6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해석은 사전-사후 양적 및 질적분석, 즉 통합적 접근 방식을 시도하였다. 통합적 방식이란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각 접근 방식의 장점은 최대화시키되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고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에 이루어진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7,26,27], 이는 미술 체험 자체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집단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간의 상호작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은 미술치료와 집단치료의 상승 작용으로 그 효과성이 매우 높다는 데 함의가 있다. 한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때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9].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여고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데[12,28], 본 프로그램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즉,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격려와 지지를 표하고 활발한 토론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30]. 이를 통하여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다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된다[31]. 이러한 태도가 학교라는 체계라는 큰 틀 속에 적용되면 또래 및 교사 관계, 학교규칙, 수업 등에 적극적인 적응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것임이 분명하다[31].

하지만 연구대상 및 연구결과 중 일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연구대상 중 일부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 또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상보적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정량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나 심리적인 개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반면 정성분석에서 심리적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정량 분석에서 객관적인 수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연구결과로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차후 연구에서는 홍보를 통한 지원자 선정보다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저하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적 및 질적 분석 연구결과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각 분석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양적 및 질적 분석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 명확한 해석 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 대상 및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대상은 충남 S시의 S여고 일부 여고생에 한정하였고 프로그램도 단 10회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에는 지역적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보정 및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통한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를 밝혀 내었으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REFERENCES

- [1] S. J. Seo. (2010). *Analysis of the casual relationships of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University, Chungju.
- [2] E. S. Cha. (2002). *A study of publi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the management of extended classes*. Master's Dissertation. Incheon University, Incheon.
- [3] K. S. Yoon. (2000). *A study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on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4] M. S. Lee & G. M. Lee. (2009).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School-related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0(1), 167-193.
- [5] Y. H. Kim & G. J. Seong. (2014). The Influence of the Stresses and Ego Resilience on the School Ada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2, 103-126.
- [6] S. K. Kim. (2000). *The effects of self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respect and 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7] Y. H. Park. (2008).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8] Y. A. Kim & G. S. Kim. (2015).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37, 81-115.
- [9] D. Y. Kim & S. H. Lee. (1997). The group art therapy in raising self-esteem for poor and broken family'

-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4(1), 1-24.
- [10] S. A. Jin. (2010).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f adolescents attending a local child center*. Master's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 [11] J. Y. Park. (2014).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based on psychocyanetic model on the sociality and self-esteem for psychiatric patients in day hospital*.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12] J. K. Jung. (2007).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way of stress coping and school adjustment of girls in high school*.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13] K. H. Pack. (2005).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for adolescents maladjusted to school*. Master's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 [14] H. J. Kwon. (2017).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group art therapy for self-understanding of 40s marri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5] D. G. Song. (2014).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to improve senior citizens' depression who live alone -through draw-a-story inspection-*.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 [16] E. M. Son. (2014). *Effects of collage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 [17] U. H. Shim. (2013).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internet addiction of youths*. Master's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 [18] J. H. Jeon. (2012). *The effect on the group art therapy for the self-grow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Master's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19] C. Teddlie & A. Tashakkori. (2009). *Foundations of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 SAGE*.
- [20] R. B. Johnson & A. J. Onwuenbuzie. (2004).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al Researcher*, 7(33), 14-26.
- [21] H. H. Kim & K. Y. Kim. (1996). Development of self-esteem inventory for children in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5), 1-12.
- [22] H. H. Kim. (1998).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It's 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and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3] J. H. Kim. (1981). *Effects of school physical environment variables on children's posi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24] S. P. Lee. (1990). *Analysis of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chool adaptation level*. Master's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25] Y. S. Lee. (1997).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earned helplessness, success-failure attribu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ju.
- [26] J. H. Kim & D. W. Chung. (2011).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and single-parent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20(5), 967-981.
- [27] Y. S. Jung & S. H. Kim. (2015).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go-identity and self-esteem of out-of-school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6), 105-130.
- [28] E. J. Kim & G. S. Kim. (2015).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poor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1(2), 179-204.
- [29] K. Y. Oh & S. Lee. (2009).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Onnuuri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6(3), 359-376.
- [30] I. R. Jung, M. Gong, & E. Y. Choi. (2016). The Influence of Cooperative Activity-Centered Group Art Therapy on Social Skill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2(2), 191-207.
- [31] E. C. Lee. (2013). Effect of learners' self-determination types and levels on interaction in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2), 91-110.

신 은 미(Shin, Eun Mi)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서대학교 가족상담학과(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청소년, 상담

▪ E-Mail : smslovess@naver.com

김 윤 정(Kim, Yun Jeong)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양가치관, 자살

▪ E-Mail : twoyun21@hanmail.net